

보도시점 2026. 6. 23.(화) 11:00  
6. 24.(수) 조간

배포 2026. 6. 23.(화) 09:00

## 농식품부, 홉플러스 납품 산지 유통조직 대상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추진

- 미수금 발생으로 자금 여건 어려운 산지 유통조직 대상 원물 확보 자금 (대출) 원금 상환 1년 유예, 신규 자금 추가 배정 등 유동성 확보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‘농식품부’)는 홉플러스와 거래하는 산지 유통조직 중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이번 금융 지원은 홉플러스로 농산물을 납품한 이후 미수금이 발생하여 농가와의 계약재배 등 원물 확보에 필요한 자금 융통이 어려운 산지 유통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. 이들 조직이 미수금이 발생하더라도 원활한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추가 자금을 공급하는 등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.

지원대상은 홉플러스 관련 미수금 발생 조직 중 올해 원물 확보 목적의 정책자금\* 만기가 도래하는 조직이며, 미수금 발생 규모와 상환예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산출하고 원금 상환 1년 유예 또는 신규 자금 추가 배정을 통해 원물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\* 산지유통활성화지원자금(원예농산물), RPC벼매입지원자금(양곡) → 산지 유통조직 대상 농가로부터의 원물 확보에 필요한 자금 저리 융자 지원(이자보전, 금리 0.5~3%)

농식품부는 올해 해당 정책자금 만기가 도래하는 조직은 25개소, 이 중 미수금이 발생한 조직은 20개소로 미수금 발생 규모가 269억 원 수준으로 파악되며, 이번 금융 지원을 통해 약 3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산지 유통조직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.

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“산지 유통조직의 유통성 문제는 조직 차원의 사업 운영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출하 농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”이라며, “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을 통해 원물 확보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올해 해당 정책자금 만기가 도래하는 산지 유통조직은 이후 개별적으로 안내되는 지원절차에 따라 대출 실행기관(농협은행)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유통소비정책관실<br>유통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박은영 (044-201-2211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명관 (044-201-2223) |
| 협조 부서 | 식량정책관실<br>식량산업과   | 책임자 | 과 장 | 허동웅 (044-201-1831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수연 (044-201-1842) |
|       | 농업정책관실<br>농업금융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세진 (044-201-1751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장미진 (044-201-1760) |

